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실질적 보상 강화

정읍시가 최근 발생한 아궁이 화재와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한 주택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 정도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소(70% 이상 또는 복구 불가) 시 500만원 △반소(30~70% 미만) 시 300만원 △부분소(10~30% 미만) 시 200만원을 지급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이 시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지원금 신청은 화재 진화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 주민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희망2025나눔 캠페인 3년연속 우수 선정

고창군이 희망2025나눔캠페인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의열매로부터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고창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당초 3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최종 6억2200만원을 모금하면서 200%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총모금액과 1인당 모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고창군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오고, 익명기부, 쌀기부 등을 통해 사랑을 실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군민들의 따뜻한 배려가 고창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다"며 "고창이 더욱 포용적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벚꽃축제 4월4일 개막 정읍시, 축산악취 잡는다

고창군, 6일까지 석정온천지구 일원서 풍성한 볼거리 · 체험 프로그램 마련

고창군이 봄을 알리는 대표 축제인 '제3회 고창 벚꽃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제3회 고창벚꽃축제' 일정(4월4~6일)과 주제 슬로건(기나췌나, 봄)을 확정하고 세부 프로그램 구성과 행사장 조성에 착수했다.

고창군 석정온천지구(고창읍 석정리 727번지) 일원에서 4월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만개한 벚꽃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축제주제 슬로건인 '기나췌나, 봄'은 지난겨울 폭설과 한파, 어려운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다린 봄이 돌아왔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위해 '고창군 3대 민생안정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개한 벚꽃 아래 여유롭게 산책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감성적인 벚꽃 로드와 피크닉 쉼터, 다채로운 먹거리가 준비된 푸드트럭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야간 경관조명과 다양한 포토존 운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제3회 고창 벚꽃축제가 봄을 맞아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37억원을 투입해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악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지원과 농가 교육, 정화 방류시설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축산과 관계자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축산농가의 인식 개선 교육과 정화방류시설, 액비순환시스템 지원 확대, 환경부서와의 협업 등을 통해 악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농립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정화방류시설(2억 5000만원)과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2억 5000만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지원(17억원) △돈사 슬러리퍼트 내 분뇨

처리 관리 지원(10억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1억원) △액비저장조 내 슬러지 제거(1억 9000만원)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2억 4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특히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악취 중점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분뇨처리 운영 기술과 악취저감 방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208곳으로 늘었으며, 악취 중점관리 농가는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17곳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축사 환경 소독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농가가 스스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사업 발굴 최선”

2월 중 연석회의서 강조…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후속 조치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사업 발굴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24일 열린 2월 중 연석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기금의 추가 지원이 결정된다"며 "전 부서에서는 부안군 실정에 적합한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해 기금 확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밝혔다.

또 권익현 군수는 "2025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개최와 관련해 읍면장



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희망소통대화에서 얻은 군민들의 의견 중 즉시 해결 가능한 단기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장기 과제는 향후 계획을 당사자에게 전달해 군정에 대한 신뢰감과 행정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관과소에서는 건의사항을 점검해 부안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올해 전국 대학교 124곳이 학부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학생들의 경제적 책임이 증가했다"며 "부안군은 전 학년 전 학기 장학금 후원을 통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을 학업에 전념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짐을 역할을 하고 있으니 빈곤등록금의 취지를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무료 토양검정 · 퇴비분석 서비스 제공

정읍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을 위한 무료 토양검정 · 퇴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농기센터는 작물별 · 퇴비 종류별 맞춤형 처방서를 발급해 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토양 환경을 보존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농경지 토양의 영양 성분(pH, EC, 유기물 등 9종)을 분석하는 동시에, 살포 예정인 퇴비의 부속도(발효 정도)와 중금속 함량을 검사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작물별 적정 비료 · 퇴비 사용량을 안내하고, 불필요한 시비를 줄여 농업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한다.

시비처방서는 이메일, SNS 알림톡, 우편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휴토람 홈페이지(soil.rda.go.kr)에서도 수시로 확인 가능하다.

토양검정 · 퇴비분석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농경지에서 5~6곳의 토양을 깊이 15cm 정도 채취해 500g을 준비하면 된다. 가축분 퇴비는 살포 전에 충분히 부숙된 상태에서 골고루 섞어 500g을 채취해 제2차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 종합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분석에는 약 5~7일이 소요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군민 의견수렴 토론회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21일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한 군민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반영하여, 군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군민을 비롯해 부안군의회,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3시간 동안 각계의 입장을 듣고 열린 논의를 펼쳤다.



주제 발표에서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가 '재생에너지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문제점과 수요 분산 전략'을,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고영호 명예교수가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팩트 체크'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군민들이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토론 시간도 마련되어,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교환되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군민들은 이후 사업 추진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한국전력공사 측은 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병래 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공동주택 분리수거시설 개선 지원

정읍시가 노후된 공동주택 분리수거시설을 재정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2025년 공동주택 분리수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공동주택 내 분리수거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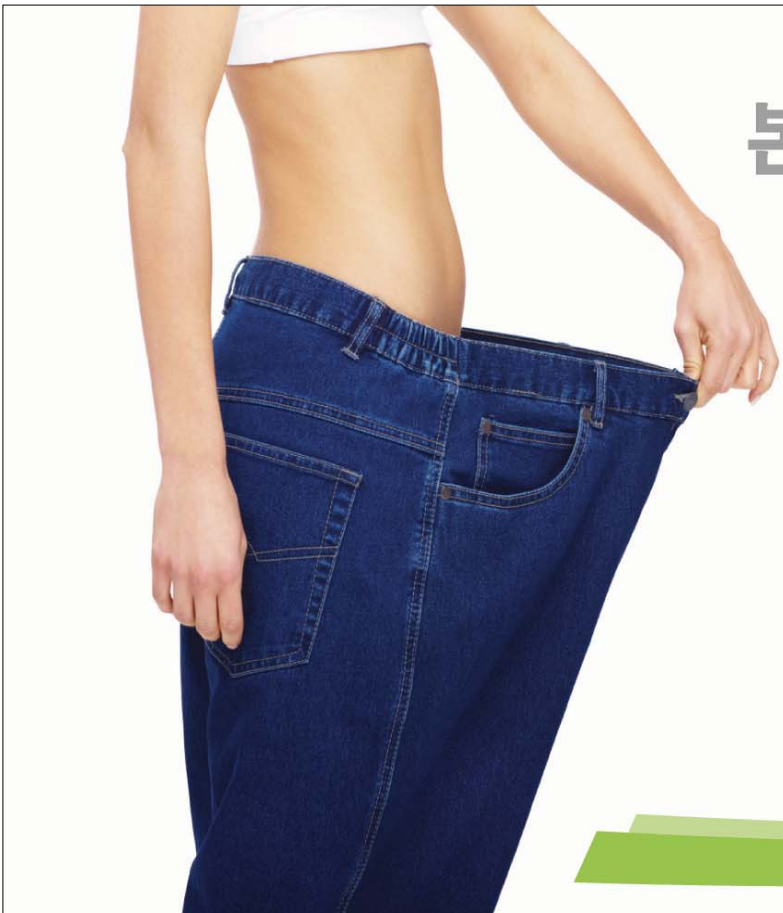
총 사업 예산은 1억원으로, 사업비의 30%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분리수거시설 설치비를 비롯해 비담공사비, 설계비 등이다. 단 순회 분리수거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지원 분리 배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만 기존에 유사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준공 15년 이상 경과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건축 준공일이 오래된 순서대로 우선 지원된다. 세대수에 따라 1500만원에서 최대 6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최종 지원 금액은 아파트별 공사설계 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공동주택은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정읍시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